



▶ 핸드볼 김은아

■ 올림픽 빛낸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

▼ 탁구 윤재영



金 보다 값진銅 획득 '런던' 향해 다시 뚝다

'금메달 같은 동메달!'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를 이어갈 선두주자 무안 출신 여자 핸드볼 김은아(20·백산건설)와 광주 송일고 출신 남자 탁구 윤재영(25)은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다음 런던대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했다.

'88동아' 김은아는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첫 메달을 따냈던 1988년 태어나 이제 여자 핸드볼의 대를 이어 성장했다.

지난 9일 조별리그 첫 경기 러시아전 후반에만 7골을 쏟아부어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었다. 센터백 김은아는 7m 벌칙던지기(패널티스hots)에서 6개 모두를 성공시키는 등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한국은 김은아의 활약에 힘입어 무승부를 이루며

다음 게임을 준비할 수 있었다.

무안 백제고 출신인 김은아는 소속팀 백제고를 회장기, 문화부장관기, 전국체육대회 등 3관왕으로 이끌며 고교리그 1위로 실업팀에 입단했다. 또 주니어, 청소년 세계대회에서 득점왕과 최우수선수상을 휩쓸며 이번 동메달에 만족할 수 없다.

1대1 돌파와 페널티 킥에 이은 수과 같은 작은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중거리 슈팅이나 속공처럼 큰 기술만 보완한다면 차세대 여자 핸드볼을 이끌 기동으로 꼽힌다.

김은아 선수 아버지 김철산(47)씨는 "어려서부터 영특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했다"며 "어려지만 부모 용돈 등을 챙기는 습관"이라고 말했다.

"미운오리"의 눈총을 벗고 '백조'로 탈바꿈한 윤재영의 동메달의 가치도 금메달 못

지 않다.

광주대초등학교 5학년때 처음 라켓을 잡은 윤재영은 금당중학교-송일고를 거쳐 유승민과 함께 삼성생명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지난 2007년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가기 전 윤재영은 마음 고생이 심했다. 국제 무대 경험이 적은 윤재영은 지난 2월 2월 탁구협회 파벌 싸움 속에 처해진 신발전에서 오상은의 오랜 복식 파트너인 이정우를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정우는 오상은과 오랫동안 복식 호흡을 맞췄고 대한탁구협회 등 관계자들의 윤재영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윤재영은 오상은과 호흡을 맞춰 준결승을 제외하고 5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며 주변의 의혹 어린 시선을 불식시키며 실력으로 당당히 동메달의 주역이 됐다.



어머니 김미숙(51)씨는 "재영이가 올림픽 가기 전에 복식조로 검증이 되지 않아 주변 시선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아 메달보다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008베이징 올림픽 동메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맨 윤재영과 김은아의 2010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했다. <끝>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성화 채화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28일 베이징 천단공원에서 열린 성화 채화식에서 중국의 장애인 여자 펜싱선수 진징(金晶·가운데)이 성화를 건네받고 있다. 장애인올림픽은 9월 6일 개막해 17일까지 총 20개 종목, 295개 메달을 놓고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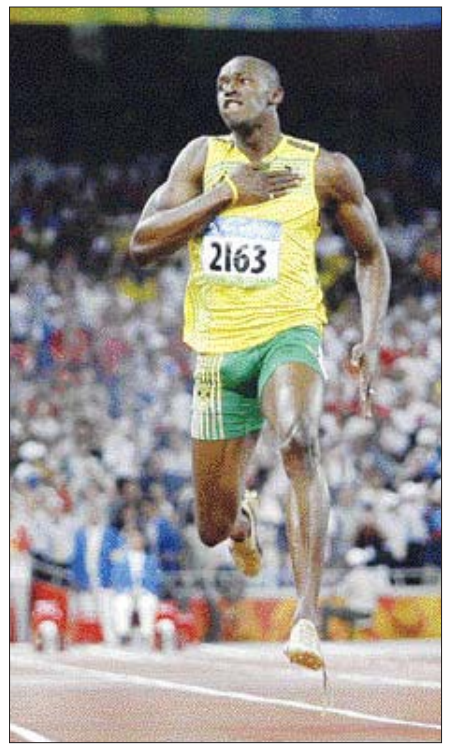
'세리머니만 안했어도 9초 52도 가능했다'

'올림픽 3관왕' 볼트 코치 밝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사진)의 코치 글렌 미스는 "볼트가 2008 베이징 올림픽 육상 100m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 속도만 늦추지 않았더라도 9초52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28일(이하 한국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볼트는 지난 16일 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9초59'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웠지만 결승선은 20m 앞두고 우승을 확신할 듯 양팔을 벌리며 포효했다.

미스 코치는 "볼트는 올해부터 100m를 시작했다. 2년만에 기록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eijing 2008 결산

<5> 이젠 런던이다

베이징올림픽 성화는 꺼졌지만 각 경기단체와 선수들은 벌써 4년 뒤인 2012년 런던올림픽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바쁘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맛본 챔피언들은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빠른 준비를 기울일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거의 '젊은파'들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연속 우승을 노릴 만 하다.

가장 나이가 어린 수영의 박태환(19·단국대)은 2012년 런던은 물론이고 아직 개최지도 정해지지 않은 2016년 하계올림픽까지 육상할 수 있다. 자유형 400m에선 금메달을 따냈지만 200m 은메달, 1500m에서는 예선 탈락했던 박태환은 4년 뒤에는 금메달 수를 더 늘려겠다는 각오다. 특히 4년 뒤에는 200m가 주종목인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올림픽 전체 하이라이트로 꼽힐 만한 대결전이 기대된다. 박태환은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이번 대회 200m에서도 펠프스 1.2

정부 아낌없는 투자로 '제2 박태환' 육성해야

위를 나뉘 가졌기 때문에 4년 뒤 대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살인 워크'로 유명세를 탄 배드민턴 이용대(20·삼성전기) 역시 4년이 지나도 겨우 24살 '새파란' 나이일 뿐이다. 오히려 같이 혼합복식 파트너로 나왔던 이효정(27·)이 그때까지 계속 호흡을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용대는 또 이번 대회에서 첫 판에 탈락한 정재성(26·)과 한 조를 이루고 있는 남

자복식에서도 금메달을 노릴 수 있어 4년 뒤에는 2관왕 육상도 내 볼 만 하다.

사상 최초로 4개 체급을 석권한 4명의 태권 전사들은 모두 20대 초반들이다. 남자 68kg급 금메달을 따낸 손태진(20·삼상에스원)이 1988년 생으로 가장 어리고 임수정(22·경희대), 황경선(22), 차동민(22·이성 한국체대) 세 명은 모두 1986년에 태어났다.

역도에서 금메달을 하나씩 들어올린 장미란(25·고양시청), 사재혁(23·강원도청)도

나이가 보면 4년 뒤를 기약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인다. 역도도 나라 별로 출전할 수 있는 체급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중국 선수를 이긴 사재혁의 체급을 중국이 피할 수도 있다. 이미 장미란의 체급은 이번 대회부터 중국이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을 정도다.

사격 진중우(29·KT), 유도 최민호(28·한국마사지)는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2연패 후보다.

단체전 연속 우승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아놓은 금메달 밭'이라고 여겼던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실패를 맛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자 6연패, 남자는 3연패를 이뤄낸 양궁 단체전 연속 행진을 4년 뒤 늘릴 수 있을 지도 지켜볼 일이다.

태권 전사들이 앞으로 런던 올림픽까지 남은 4년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지를 지켜보는 일도 스포츠 팬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끝>

부동산 거래의 지부선
T.062)228-1368
062)226-1399

대중법률경매(주)

사법포탈
투자 및 배우면서 일하는 법
공인중개사 협회

| 지역 | 소재지 | 면적(㎡) | 총 | 감평가 | 최저가 | 비고 |
|----|-----|-----------|----|------|-----|---------|
| 대구 | 계남동 | 326/773 | 4층 | 49억 | 39억 | 상수지구 1구 |
| 대구 | 계남동 | 149/257 | 4층 | 29억 | 21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274/1076 | 5층 | 19억 | 14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128/304 | 3층 | 49억 | 29억 | 주공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187/647 | 4층 | 14억 | 8억 | 주공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504/2538 | 6층 | 149억 | 79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1128/2185 | 4층 | 16억 | 11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105/132 | 2층 | 29억 | 19억 | 주공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528/673 | 4층 | 89억 | 39억 | 주공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413/800 | 4층 | 89억 | 59억 | 신일 1구 |
| 대구 | 계남동 | 188/774 | 4층 | 9억 | 19억 | 신일 1구 |
| 대구 | 계남동 | 134/298 | 4층 | 29억 | 19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504/2538 | 6층 | 149억 | 79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451/1180 | 4층 | 10억 | 7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978/785 | 3층 | 11억 | 4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1322/205 | 4층 | 49억 | 29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833/268 | 4층 | 29억 | 19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524/318 | 4층 | 39억 | 19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1322/213 | 4층 | 19억 | 8억 | 대우영도 1구 |
| 대구 | 계남동 | 92/105 | 4층 | 19억 | 8억 | 대우영도 1구 |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 수원지구 333-1(범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면 상업용지, 3만도도 주차정원 720㎡ 3.3㎡당 600만원
▶ 수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 수원지구 단밀평면 170세대 정문 앞 주차 330㎡ 3.3㎡당 450만원
▶ 광안구 수완동 35㎡ 대로면 자연녹지 1.782㎡ 4.231㎡ ㎡당 70만(본합기)

노들메디칼센터 임대분양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인형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비인후과 등) 임대료(평수 다임)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광안구 우산동 1605-3 허남시영사 2단지)

수원지구 4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마트/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피자/ 김밥나라/ 청과/ 정육/ 차인오프/ 떡집/ 건강원/ 안경점/ 편의점/ 학원/ 병원/ 약국

평수
60평/ 40평/ 25평/ 13평/ 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 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 후 상가 입점시 잔금납부, 용자가 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